

큰스님 수행한담

“계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부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①

但歸觀殺盜妄 從性而起 起即無起 단체관살도음망 종성이기 기즉무기

다만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것임을 자세히 관조한다면 일어난이 곧 일어난이 없는 것이다.

當處便寂 何須更斷 所以云 담처변적 하수경단 소이운 不怖念起 唯恐覺遲 불과염기 유공각지 又云念起即覺 覺之即無 故悟人分上 우운염기각각 각지즉무 고오인분상 雖有客塵煩惱 俱成煩惱但照或無本 수유객진번뇌 무성제호 단조혹무본 空華三界 如風卷塵 공화삼계 여풍권연 幻化六塵 如鷲消水 환화육진 여탕소빙 若能如是念念修習 不忘照顧 악능여시념념수습 불망조고 定慧等持 則愛惡自然淡薄 정혜등지 즉오자연박약 悲智自然增明 畢業

는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고, 허수아비와 같은 객관 세계는 마치 끓는 물에 녹는 얼음과 같을 것이다. 만일 이처럼 생각생각에 담고 익히며, 마음을 관조하기를 잊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면 곧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히 없어지고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밝게 드러날 것이다. 죄업이 자연히 없어지고, 공덕이 절로 늘어나서 번뇌가 다할 때에는 생사도 끊어질 것이다. 만약 미세한 번뇌의 흐름도 영원히 끊어져서 원만한 깨달음의 지혜가 홀로 밝게 드러나면 곧 천 백억 화신을 나타내되 시방세계 중생들의 근기에 감응하게 되니, 그것은 마치 하늘에 높이 뜬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응용이 무궁하여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고, 즐거움만 있고 근심이 없으니, 이를 일러 크게 깨친 세존이라 한다.

問後修中 定慧等持之義 實未明了 문후수문중 정혜등지지의 실미명료 更爲宣說 示示開迷 引入解脫之門 更爲宣說 示示開迷 引入解脫之門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 말고 깨달음이 늦을까를 두려워하라

비지자연증명 고업 自然斷除 功行自然增進 煩惱盡時 자연단외 공행자연증진 번뇌진시 生死即絕 若微細流注永斷 생사즉절 약미세유주영단 圓覺大智 豁然獨存 即現千百億化身 圓각대지낭연독존 즉현천백억화신 於十方國中 赴感應機 以月現九霄 於十方國中 赴感應機 以月現九霄 於十方國中 赴感應機 以月現九霄

경위선설 위시개미 인입해탈지문

물었다. "깨친 뒤에 닦아나가는 문중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동등히 가진다는 뜻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말씀하시어 미혹을 없애고 해탈의 문에 들게 해 주십시오."

答若說法義 入理千門 莫非定慧 답약說法義 入理千門 莫非定慧 답약설법의 입리천문 막비정혜 取其綱要則因自性上 體用二義 취기강요즉단자성상 체용이의 前所謂空寂靈知是也 前所謂空寂靈知是也 前所謂空寂靈知是也 前所謂空寂靈知是也

답하다. "만약 법과 그 뜻을 말한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천 가지 문은 선정과 지혜가 아님이 없다. 그 요강을 든다면, 단지 자기 성품의 본체와 작용의 두 가지 뜻이니, 앞에서 말한 비고 고요함과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그것이다. 선정은 곧 본체로 지혜는 작용이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석산스님 (성북동 정법사 회주)

유년에도 더웠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어느덧 들뜬 곡식이 무르익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물어대는 새소리도 한결 정겹게 들리고, 바람도 한결 맑아 지내기에 아주 좋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원래는 북천암이라는 암자가 있던 곳인데 1960년에 정법사를 지어 중창했습니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때만 해도 칠성각 한테만 머물러 있는 고즈넉한 암자였지요. 그 후 큰 법당을 짓고, 팔상전과 요사채, 산신각, 종각 등의 불사를 하나 하나 이루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저 아래 대원각까지가 모두 산이었고, 깨끗한 냇물이 정법사 앞을 가로질렀지요. 그 길을 매일 걸망을 메고 내려가서 장을 보고, 물소리 바람소리를 벗삼아 올라 오곤 했습니다. 길을 걷다 잠시 쉬어 갈 때면 멀리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경관이 수려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등산객들이 이곳 정릉 등산길을 통해 산에 오르곤 했었는데, 몇년 사이에 개발되어 정법사 앞까지 차도가 뚫리고,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서 버려 예전같은 낭만은 사라져버린지 오래입니다.

저는 16살 때 강릉 칠성산 법왕사에서 절밥을 먹으며 1년간 생활했습니다. 법왕사 노스님 밑에서 <전수경> 읽는 법도 배우고, 예불하는 법도 배우고, 또 스님 친은 어떻게 만드는지, 떡을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배웠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다 17살 되던해 봄에 함경도 안변 석왕사에 가서 머리를 깎고 본격적인 불교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왜정때라 그때는 한달에 2원을 가져가야 절에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 8원을 가져가서 4개월간 <초발심자경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가을에 건봉사 에 와서 박보광스님께 사미계를 받았습니

다. 보광스님은 항상 <법화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화택, 비유가 있지요. 집이 활활 타는데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그것도 모르고 놀이에 빠져있자 아버지가 양겨, 우겨, 폭겨로 그들을 이끌어내 구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것은 중생이 오욕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니 그 오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타라고 하신 부처님 법입니다. 보광스님은 항상 그 이야기를 하며, 오욕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일평생 중노릇 해도 나쁜

과보를 받는다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건봉사는 열불만일회가 유명한 곳입니다. 건봉사의 31인이 열불을 하다가 살아서 극락으로 승천했기 때문이지요. 겨울 내내 건봉사 강원에서 낮에는 사집을 공부하고, 저녁에는 열불을 배웠습니다. 어장 만일스님이 열불을 가르쳐 주셨는데 열불공부는 따로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장스님이 한 소리를 하면 그것을 잘 익혀두었다가 저녁으로 모여서 잘하는 이를 따라 소리로 배웠습니다.

열불을 처음 배울때에 거불을 먼저하는데 "나아-무 청어영-정법-신 비이로 자이나부음."

<전수경>을 먼저 하고 거불을 하는데 그날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리를 배운사람은 소리를 세마디로 해서 거불부터 배우고 헌좌송, 공덕계, 질영계, 응호계, 칭(관음차어), 고악계, 다계, 신중작법순으로 공부합니다. 신중작법을 배운뒤에는 짓소리를 하기도 하나 나는 신중작법까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를 안참이라고 합니다. 법당안

- 약력 · 1919년 출생 · 37년 건봉사서 사미계 수지 · 56년 법어사서 비구계 수지 · 77년~91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 역임 · 성북동 정법사 주지 역임 · 현 정법사 주석



“살면서 탐진치가 쌓이니 정작 불성은 가려지고 중생으로 빠져들어요”

에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짓소리는 전문가를 두고 더 배우야 하는데 이걸 다 제대로 배우려면 한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열불은 한 5년 공부해서 소리를 딱 맞추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보통 20여명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열불을 20명 가운데 그 공조를 먼저 알아듣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장스님에게 1시간 정도 배우고, 먼저 공조를 배운 한두사람을

따라서 몇시간씩 연습을 하는 거지요. 그러한 과정을 5년정도에 다 마치는 이는 실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절에서 다시 열불을 가르치게 됩니다. 다 같이 배워도 다 익히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강원공부를 해서 그 중에 감사가 되는 이가 한두 사람이 될까말까하듯이 열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봉사에서 열불을 배울 때 내가 남들 보다 좀더 잘 되었고, 그래서 열불을 전공하게 된 거지요.

태고종 스님들은 아직도 열불을 하는

스님이 있지만 조계종에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도 없고 하려고 하는 이들도 없어요. 배우기가 어렵다는 것도 장애가 됩니다. 1년을 죽기로 해봐도 거불하나 마치기 힘들고,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선(禪)으로만 치우쳐서 지금은 열불당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조계종 사찰에는 선방만 있지 열불당이 없습니다. 거기에도 지금은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를 나와야 사미구실을 하지 학교 안 나오면 어디까지 대우도 못받으니, 모두 다 학교에 다니려고 하지 어디 열불 배우려 하겠습니까.

열불은 지성으로 하면 공덕이 아주 큼니다. 소리는 스님네가 하는 것이고, 재가신도는 아마타불 열불을 하는 것이 공덕이 크다고 했는데 '나무극락세계아미타불'을 아침 점심 저녁시간을 정해서 각 1시간씩 열심히 하면 아주 좋습니다. 열심히 열불하는 가운데 부처님 가호가 오고, 신심이 바로서고, 내 길이 밝아지



김시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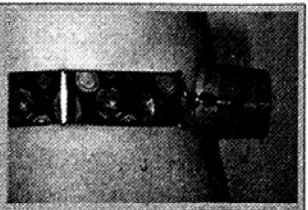
신개발품 시·연·쑥·뜸·기

난치병에서 피부미용까지

쑥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았습니다.

피부에 전혀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뜸 수 있습니다. 환의사 대체의학 연구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복통치료장면



▼어깨걸림 치료장면



쑥뜸 어느 한곳이라도 좋지 않은 본은 본한 재를 꼭한번 사용하세요.

쑥'시연 쑥뜸기'는 아픈 곳이 곧 치료됩니다.

각종질병 쑥뜸의 효능

-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혈압 견비통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당뇨병 요통 전립선 조루증 생중증 피부병 생리통 위장병

만병의 원인은 피가 탁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인데 쑥뜸을 뜨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증가하여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되어 병이 치유됩니다.

■판매원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 ■제조원 : 도훈건강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138

053-628-9145 / H.P 011-808-8880

■가격 : 200,000원(1set) 압축쑥 1개월분(50,000원), 쑥뜸기일체, 안내책자(12,000원)포함

입금계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삼·부·농·산·은·유·기·재·배·약·초·만·을·생·산·하·고·있·습·니·다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황토삼백초 건조

삼백초의 놀라운 성분들

황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보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액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노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大悟居士(김봉서 원장)

이런분들한테 좋습니다.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 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간이나 당뇨 혹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차나 술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 도 좋습니다.

97.11.6 / 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8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삼부농산 SAM BU Fa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3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